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

- 대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Small Libraries as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Atti Library

이 성 신(Seongsin Lee)*

성 희 자(Heeja Sung)**

이 세 나(Sena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대상도서관-아띠도서관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데이터 수집절차 |
| 3. 선행연구 | 3. 데이터 분석 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 1. 작은 도서관 | V. 결론 |
| 2. 지역사회 공동체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 동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었던 과정을 탐색해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아띠도서관 만들기모임 초기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자료는 질적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띠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인적네트워크가 공고해지고 확장되는 토대가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단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키워드: 작은도서관, 아띠도서관, 지역사회 공동체, 질적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new role of the small libraries in the community as the center of the community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Atti library in Daegu.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original members of the Atti library.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metho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human networks of the community were solidified and expanded through the Atti library. Furthermore, the community people could have more confidence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could grow further through the Atti library. The small libraries should think about their new roles as the center of the community beyond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ies.

Keywords: Small libraries, Atti library, Center of community, Qualitative method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eess@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hjsung@knu.ac.kr) (교신저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dreammor@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8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8년 3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77-97,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12.7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지고 유대감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학실 2014, 183). 이러한 지역사회의 위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이웃과 신뢰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집이 있는 곳으로써(이명호 2016, 89)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즉 존재하지만 실재하기 어려운 생활공간이 지역사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명호 2016, 91). 지역공동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근린지역을 근거로 한다던가, 가치나 경제활동, 생활환경을 공유한다거나 마을에서 공통의 규범을 가진다는 특성을 지닌다(이명호 2016, 93-94).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공통의 규범을 가지고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하는 마을환경이 좋을수록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공동체는 공동체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등 긍정적 선순환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기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고자하는 가치에 대한 공유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육아품앗이, 보육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육아고민을 함께 나눴으로써 서로간의 유대관계는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이후 육아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는 더욱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점차 그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를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아이디어였다. 이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초기의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간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구시 동구의 안심지역은 K2공군기지 비행장의 안전비행관련으로 고도제한 및 개발제한, 소음 그리고 저탄장,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다. 동구 안심지역은 아이들이 성장 할 즈음이면 이사를 가는 그런 지역이었다. 어찌다가 유입된 사람들도 자녀교육상의 문제로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면 이사를 고민하고 결국 떠나가게 되는 곳이었다. 오랫동안 안심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 주도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이 아띠도서관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주도로 만들어진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은 주민들에게 소통의 장, 교육의 장, 여가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특정의 욕구가 발생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고, 즉 사랑방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인간소외와 갈등, 재난, 빈곤, 도태 등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교류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려는 염원을 담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써 또한 생활공간으로써 작은도서관이라는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는 과정을 아띠도서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단지 도서관으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선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새롭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역할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 동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었던 과정을 탐색해보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의 정의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아띠도서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초기 도서관 만들기 모임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셋째,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3. 선행연구

작은도서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통계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발맞추어 학계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작은도서관의 지역 공동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작은도서관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2015)는 작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작은도서관의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유양근, 박송이(2010)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하여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병훈(2012)은 서울시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한 연구들이다.

김윤영, 정은주(2016)는 안산시에 위치한 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이 국제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공간, 지역주민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상호이해와 소통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재연(2015)은 도시 재생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용도 활용시설이고, 이용자들을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역량 등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양영균(2012)은 작은도서관이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6개관을 방문하여 관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연결되고 뻗어나가는 인간관계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경(2016)은 부천시 작은도서관에 나타나는 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평생학습은 기존 전통적 제도적 교육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학습 주체의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삶의 개선을 지향하며 변화하는 확장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박규남(2016)은 작은도서관을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고 알맞은 양과 질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민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기능적 공동체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기능적 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작은 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도서관법 제2조

2009) 도서관이다.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규모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연구자들은 작은도서관을 ‘시설 중심’보다는 ‘운영 중심’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도서관을 운영 및 역할 측면을 중심으로 재정의하면, ‘법에서 정한 최소규모 이상의 시설, 자료, 인력을 갖추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비영리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및 정보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의 생성체이자 소규모의 생활친화적 독서, 교육, 문화 공간’(유양근, 박송이 2010, 176)이라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시작된 ‘마을문고’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마을문고 사업은 농민에게 독서 기회와 도서관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3만여 마을 문고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마을 문고는 새마을문고로 전환되었지만, 관 주도로 진행된 사업이기에 활발히 지속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1990년대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이때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박정숙 2013, 32-33) 2000년대 이후 어린이 작은도서관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작은도서관이 크게 증가하였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설립한 어린이도서관들과 에스콰이어 재단이 후원한 인포어린이도서관 등이 민간 영역에서 설립되어 성장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작은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92년 종로도서관이 산하 분관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만들어 작은도서관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문화관광부가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주도의 작은도서관 설립이 진행되었고, 2009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김유승 2014, 385)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2016년 기준으로 5,914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이 1,010개관임을 감안하면, 전국 공공도서관의 약 5배 이상의 작은도서관들이 등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작은도서관들의 연간 도서 대출 권수의 평균은 1관당 3,487권이며, 연간 이용자수는 1관당 5,765명이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16년 기준)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 시설이나 장서의 규모가 작지만, 도서 대출이나 이용자 수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나 이용자수와 같은 양적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만이 가지는 고유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김유승은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생활권에서 접근성 용이,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기반 시설로 보았으며,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 서비스 제공,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의 수행,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 평생 학습 또는 평생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김유승 2014, 398) 박정숙은 좋은 책을 제공한다는 점, 일상적이라는 점,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점, 문화사랑방이라는 점, 한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는 곳이라는 점,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점 등을 작은도서관의 특성으로 열거하였다. (박정숙 2013, 35-39) 양병훈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누구에게나 책과 지식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어린이,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병훈 2012, 292)

2.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는 공동체는 영어로는 community이다. 지역사회 또한 community이므로 지역사회 공동체는 동의어를 반복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감이 중요한 요소이며(성희자 전보경, 2006, 153),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단위체를 지역사회 공동체¹⁾라고 볼 수 있겠다. 근거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단위 혹은 조직, 활동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공동의 의식, 규범 등 공동체의식 또한 공동체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사회공동체는 주민의 연대와 호혜성, 신뢰 형성, 지역정체성, 규범강화 등 통섭적이고 동태적인 발전기제로 작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김학실, 2014, 181) 즉,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역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족공동체가 붕괴되어 육아와 같은 일상생활도 개인에게 위기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공통적 이해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마을단위에서 서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현용, 2012). 나아가서 지역사회내의 더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공동체에 참여할수록 그들의 웰빙수준이 제고되므로(Helliwell & Putnam, 2004, 1443; 성희자·이강형, 2013, 317 재인용)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은 주민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마을만들기의 초기 시도 중 하나는 ‘성미산 마을’이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동육아조합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개소, 생협, 마을방송, 극장 등의 다양한 마을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공동체들이 구성되게 되었다.

특히 인천 가좌2동의 사례, 광명시 하안동의 사례, 용인시의 사례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마을의 구심점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형성된 긴밀한 관계가 도서관 밖의 생활세계로까지 연결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 사례들에 속한다.

1) 지역사회공동체 혹은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이 논문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도서관-아띠도서관

아띠도서관은 대구 안심마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공동체 조직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수요는 있지만 걸어서 갈만한 도서관이 없다는데 주민들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구 참여연대 동구주민회와 한사랑어린이집이 결합하여 2005년 ‘어린이도서관 준비’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어린이 도서관 준비’ 모임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 지역의 도서관을 탐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서관을 건립할 기금마련 행사들을 개최하게 되었다. 홍보행사를 통하여 돼지저금통분양, 십시일반 후원행사에서 목표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게 됨으로서 참여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주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주부,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나아가 마을에서 주민으로서의 역할로 사회적 주체로서의 활동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안심마을 주민들은 거의 3년간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필요성을 배우고, 도서관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08년 10월 4일에 어린이 도서관, 즉 아띠도서관을 개소하게 되었다. “아띠”는 순우리말로 ‘친한 친구’라는 의미이다. 도서관의 이름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김문정, 2015:49-53). 공식적인 도서관 명칭은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이다. 도서관 개관 과정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공동체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내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개관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이 사서 자원봉사자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도서관을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도서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도서관은 현재 제2기 운영체제로 도서관장을 비롯한 1명의 상근직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아띠도서관은 14,68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서자격증을 가진 정식 사서는 아니지만 사서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의 모임인 ‘사서자원봉사 팀’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개맹이(인문학강좌)’, ‘왓자지꼴(미디어팀)’, ‘엄마들의 글쓰기 모임’, ‘어린이 기자단’ 등의 동아리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모교육’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데이터 수집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 동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 사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과정을 탐색해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

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목적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아띠도서관을 만들 당시 초기 구성원들 8명과 이후 도서관의 운영체제에 변화가 발생한 이후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2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가량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과 더불어 인터뷰 진행 상황에 따른 추가 질문을 덧붙이는 방식의 반구조화 인터뷰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도서관이 위치해있는 안심지역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의 대략적인 구성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질문 내용

질문	내용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 정보	성별, 연령
아띠도서관 설립 과정에 관한 사항	초기 지역의 모습, 초기 지역사회 운동, 도서관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도서관 설립을 위한 활동 내용, 등
아띠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초기 아띠도서관의 운영상의 특징,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특이점, 현재 운영상의 특징 등
아띠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아띠도서관이 가지는 의미, 아띠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및 기능 등

3. 데이터 분석 방법

심층인터뷰 내용은 전사한 후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질적 자료 분석 기법과 절차에 있어서 명확한 한 가지 분석기법과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영천 2012, 528). 질적 분석기법 중 하나는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이다. Strauss와 Glaser는 연구자가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개방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적 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Strauss와 Glaser에 따르면 위의 세 단계 코딩을 거쳐 연구자는 데이터내의 개념들을 발견해내고 범주화하며 개념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구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Creswell 2002, 444).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이론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Strauss와 Glaser의 방법론은 근거이론방법론(Grounded Theory Method)으로 일컬어진다. (신경림, 김미영 2003, 23) 이와는 또 다른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세그멘팅(Segmenting), 초기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이라는 절차를 따르는 방식이 있다(김영천 2012, 530). 세그멘팅이란

코딩을 위한 준비단계로 즉 코딩의 전단계로서 데이터들 중 연구주체에 비추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내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초기코딩이란 세그멘팅 과정을 통해 연구주체에 비추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자료들을 종합 평가하여 반복되는 내용이나 의미에 최초로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며, 심층코딩이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나 의미들 중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별로 묶는 과정이다(김영천 2012, 532-543). 심층코딩을 통해 데이터는 몇 개의 영역으로 범주화가 가능해진다. 마지막단계는 주제의 발견이다. 주제의 발견은 심층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들을 비교하여 서로 관련성이 있거나 연결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거나 혹은 범주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이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김영천 2012).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은 위의 세그멘팅, 초기코딩, 개방코딩, 주제의 발견의 과정을 따른다. 첫째, 전사된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본 후 세그멘팅과정을 통해 연구목적에 비추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를 부여하는 초기코딩 작업을 진행하여 456개의 단어 혹은 어구를 부여하였다. 세그멘팅 과정과 초기코딩 결과의 일부 예는 아래 <그림 1>과 <표 2>와 같다.

유 : 선생님께서 아따 도서관의 모임, 아따 도서관을 준비하는 준비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로부터 참여를 하신건가요?
 유 : 네.
 이 : 그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유 : 아따 도서관 이런 것을 좀 해보자 그 모임을 했던 건은 2007년, 1월, 2월, 이때쯤, 이것 물거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때가 그 즈음이었었는데, 그 전에도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런 관계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지.
 이 : 그 전에도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유 : 관계도 있었고 그런거 비슷하 이래저래 여러번 시도도 해보고 하다가 잘 안되고 시도했다. 이래저런 이런저 해보자 이런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랬던 것들이 있었지. 그니까 이제 아따 도서관을 만들자고 하게 되거나 이런건 아니. 그 전에도 여러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대구에 대구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대구참여연대 통구주민회 회라는 통구의 주민회 모임이 있었고요 이 모임같은 경우는 주민회 모임이라는 주민회 모임이 있었고 이 조직이 효목동 쪽에 그때 당시 있었는데, 효목동 쪽에 사무실이 2004년부터 그때부터 꾸려져 있었어. 그때 그때 통구지역 내에서 뭔가 이제 사회 가치있는 일 들을 해보고자 하는 모임이 계속 있었고 저는 거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 : 그럴 선생님은 대구참여연대, 통구주민회 여기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유 : 고 참여를 했었고 근데 제가 이 마을에 살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대구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그전에 2001년도, 2년도 이때부터 분리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리 주민(센터)?? 이런 강제 같은 것들 매년 있어 그런 강제 제가 계속 들었구요 들으면서 아 이제 특히 그당시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 없는 시민 운동 한다 이런 표현 들을 많이 받았어 안 알게 하면 지역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나 소통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 어 날 수 있 느냐 이 게 주 요 한 문 제 의 식 중 에 하 나 였 고 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민학교 같은 것을 매년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주민 조직화, 라면가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거나, 이런 부분들 하나 있었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통구주민회라는 것을 통구주민회 모임을 하고, 주민회 단체를 만들고,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의회를 갈 시민단체가, 기타 등등의 활동들을 했었어요.
 이 : 그럴 선생님은 통구주민회 모임을 만들고 하느거에 주제적으로 참여하신

[표모7] isar	2018-01-06 16:02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모임에 대한 생각이 있었음
[표모8] isar	2018-01-06 16:04	도서관을 위한 모임 이전에 모임 등의 형식의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었음
[표모9] isar	2018-01-06 16:04	지역주민들의 모임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표모10] isar	2018-01-06 16:04	대구 참여연대, 주민회 모임 등 형식의 주민 모임이 있었음
[표모11] isar	2018-01-06 16:06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모임들이 있었음
[표모12] isar	2018-01-06 16:06	지역을 위한 분리 단체 활동의 필요성을 느낌
[표모13] isar	2018-01-06 16:06	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강의를 개최하기도 함
[표모14] isar	2018-01-06 16:06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소통 구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함 - 시민학교가 그 한 예임

<그림 1> 세그멘팅 및 초기코딩 예시

<그림 1>과 같이 전사된 인터뷰자료들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밑줄로 표시하였으며(세그멘팅) 다음으로 밑줄로 표시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들을 부여하는 초기코딩을 진행하였다(위 <그림 1>에서 메모로 나타난 부분). 초기코딩 과정을 통해 세그멘팅된 부분에 부여된 단어 혹은 어구들의 몇 몇 예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초기코딩의 일부 예시

일련번호 ²⁾	초기코딩
1	과거-자녀양육에 열악한 지역 환경
2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준비 모임이 생김
3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음.
4	모임을 통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5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6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근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7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을 통해 도서관의 필요성 및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8	도서관의 필요성과 원하는 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9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10	지역주민들이 도서관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1	도서관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역시 지역사회의 적극적 호응을 받음.
12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사서회의 ³⁾ 및 운영회의가 이루어짐
13	도서관을 위한 봉사자가 많이 생김
14	아띠로 인해 동구 지역에 커다란 변화가 생김
15	아띠가 마을의 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함.

다음 단계는 초기코딩 결과 발견된 456개의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을 주제별로 묶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구 혹은 단어들을 부여하는 심층코딩이다. 심층코딩결과 29개의 항목들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2) <표 2>의 일련번호는 아래 <표 3>의 초기코딩 일련번호와 다르며 <표 2>의 일련번호는 초기코딩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부여된 번호이며 전체 초기코딩 결과 발견된 456개에 대한 일련번호는 아니다.

3) 사서회의의 사서들은 사서자격증을 지닌 사서가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들 중 사서역할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표 3〉 심층코딩 결과

	심층코딩 결과	초기코딩 번호
1	과거 지역사회의 주거 환경	116,117,118,134
2	과거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징	5,114,115,133,200,201,202,205,206,2422 79,280,326,341,380,395,397,413,414,
3	과거 지역사회의 양육환경	2,12,13,14,135,136,137,154,155,
4	과거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	114,243,415
5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149,150,210,212,247
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향이 있었음	120,121,122,123,130,146
7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124,125,126,147,148,213,250,418
8	양육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20,21,31,119,138,139,140,143,153,156.1 58,165,179,180,207,208,211,249,284,285 ,291,417,445,446,
9	도서관 만들기 준비모임의 시작에 대한 합의에 이름	11,23,26,27,131,132,141,287
10	학부모 도서관학교(이를 통해 강연, 학부모 모임 등이 생김, 도서관 만들기 준비모임 이전 형태)-지역 주민들과 교류가 주 목적임	24,25,293,294,295,296,297,447,448
11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지역주민의 욕구 조사	29,30,34,36,37,38,71,76,168,209,254,288 ,292,305
12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도서관을 위한 기금마련 활동을 전개함(돼지저금통 분양, 후원의 밤 행사 등)	32,33,34,36,37,88,89,144,164,256,400,40 1,402
13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도서관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진행함(방송국을 통한 홍보, 축제를 통한 홍보 등)	57,58,59,64,77,144,160,251,252,253,264, 265,307,308
14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타도서관탐방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음	61,163,255,286
15	자원봉사자에 의한 도서관 운영	90,91,104,170,220,259,304,311,359,375
16	사서회의 및 운영회의를 통한 도서관 운영	43,54,83,84,226,311,346,348,358,360,36 3,432,437
17	도서관과 지역주민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	162,163,169,399,426
18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생겨남	7,40,74,75,66,87
19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협동조합등)이 생겨남	6,68,69,70,66,108,182,183,273,391,425, 78,72,101,102,196,197,258,261,266,267, 268,326,327,329,330,331,337,338,378,37 9,392,393,435,436,451,453,454,456
20	도서관 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님	78,72,101,102,196,197,258,261,266,267, 268,326,327,329,330,331,337,338,378,37 9,392,393,435,436,451,453,454,456
21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함	79,103,452
22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주인의식이 있음	93,94,225,228,232,275,325,433,438
23	지역 공동체 발전의 중심이 도서관이라고 인식함	86,92,95,96,105,108,230,231,239,240,33 4,410,424,429,450
24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님	45,73,78,101,269,275
25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함	169,219,254
26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 및 강화됨	51,111,112,169,173,174,198,199,221,222,23 3,272,332,333,344,351,352,387,404,408,449
27	도서관과 함께 자신의 내적 성장을 발견함	63,227,389,396,405,406,407,409,423,431,434
28	도서관 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지역사회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이 깊어짐	216,217,224,342
29	도서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184,185,186,189,214,215,216,218,227,25 7,313,376,377,430,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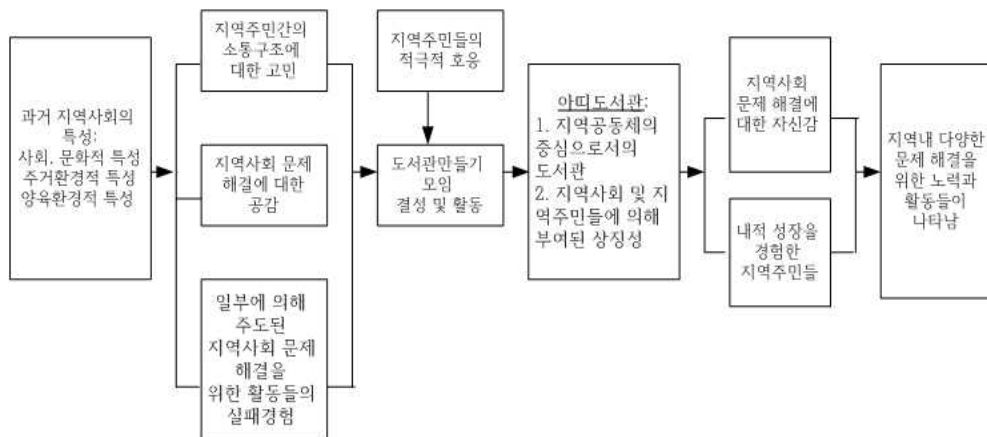
심층코딩결과 <표 3>과 같은 29개의 범주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심층코딩 결과 발견된 29개의 범주들을 보다 상위의 주제들로 묶는 작업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견된 주제들 간의 관계를 발견해내는 주제의 발견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표 4> 주제의 발견

	주제	심층코딩 번호
1	과거 지역사회의 특성	1,2,3,4
2	지역주민간의 소통 구조에 대한 고민	7,
3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	5,
4	일부에 의해 주도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의 실패 경험	6,
5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	
6	도서관만들기 모임 결성 및 활동	8,9,10,11,12,13, 14
7	아띠도서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도서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에 의해 부여된 상징성	15,16,17,18,19, 20,21,22,23,24, 25,26
8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29
9	내적 성장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	27
10	지역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나타남	28

주제의 발견과정을 통해 발견된 10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과거 지역사회의 특성, 2) 지역주민간의 소통구조에 대한 고민, 3)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 4)일부에 의해 주도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의 실패 경험, 5)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 6)도서관만들기 모임 결성 및 활동, 7)아띠도서관, 8)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9)내적 성장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 10)지역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나타남. 인터뷰 전사자료와 열 가지 주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 2>와 같이 주제들 간의 관계



<그림 2> 주제들 간의 관계: 아띠도서관의 지역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

가 정리 가능하였다. 이러한 주제들 간의 관계는 아띠도서관이 대구 안심지역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림 2>의 과정을 중심으로 아띠도서관의 지역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분석결과를 통해 발견된 주제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띠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과정상의 몇몇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대구 동구의 안심지역은 사회, 문화적 환경, 주거환경 및 양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은 도심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집값이 싸고 임대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환경이 열악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대구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등을 비롯한 시민운동에 의한 해결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 참여가 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아띠를 만들자고 한 것이 최초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거 비슷한거 여러 번 시도하다 안되고 ... 대구에 대구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라는, 동구의 주민회 모임이 있었고요. ... 효목동 쪽에 사무실이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꾸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구지역 내에서 뭔가 이제 사회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모임이 계속 있었고”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통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주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민학교 같은 것을 매년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주민 조직화 라던가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거나. 이런 부분들 하나 있었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동구주민회라는 것을, 동구주민회 모임을 하고, 주민회 단체를 만들고,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의회를 감시한다던가, 기타 등등의 활동들을 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의 평가와 진단을 내리면서, 결국 그 활동하는 멤버들의 생활공간에서 다시 좀 출발하는 활동들을 기획을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일부 주민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제해결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지역주민 상호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식

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일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주민회 차원에서는 이 활동을 주민회 자체 사업에서의 필요와 욕구만이 아니라 마을의 필요와 욕구로 확장되는 성격으로 가야지만이 ...”

“동구주민회 아까 시작점이 되었던 주민회에서 끌고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

“기타의 다른 단체나 이런 것들이 그 모임 같은게 조금 조금씩 있었어. 반야월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을 해보자고 하다가 잘 안되기도 하고 ...”

둘째, 지역이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기 시작되었다. 과거 대구의 안심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 이었다. 도서관이 없었으며 서점 및 학원들도 접근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그때 반야월 쪽에서 회원들이 아이 키우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의 욕구가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아이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작은 마을 도서관. 그 당시에 풀뿌리 주민 자치 활동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씨앗이 뿌려지는 시점에. 작은 도서관, 마을 도서관들이 굉장히 공동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사례들을 좀 듣고 ...”

“우리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지만 같이 품앗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애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여튼 책을 공급해주고 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어려웠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책을 쉽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고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지역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모였고 그 학부모들하고 강좌가 끝난 뒤에 이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에, 반야월 어린이 도서관을 준비하는 주민모임. 이 주민모임을 만들어서 본격화 한 거죠.”

이를 위해 도서관만들기 모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였다. 우선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확인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개관하게 될 도서관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을 방문하여 도서관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모금 행사를 진행하였다. 기금모금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돼지저금통’을 분양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고 저금통을 채워 도서관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이었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공원에서 계속 매주 캠페인을 하면서 알려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필요한 기금이 있으면 돼지 저금통을 나누어서 기금을, 기금통을 돌리기도 하고, 또 왜 도서관이 필요한지 관련된 된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알아보러 다니고 대전에 있는 도서관이 되게 괜찮다고 그래서 견학도 가고”

“이제 뭐 우리끼리도 모금하고 또 이제 후원행사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했죠. 후원행사도 여러 차례 걸쳐서 하고”

“욕구도 조사의 내용은 이런 거죠. 뭐 도서관이 필요한 게, 뭐 원하는냐.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다 그냥 너무나무 원한다. 저희가 받은 걸 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책먹는 돼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친개를 분양했어요.”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은 아띠도서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서관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든 자신들의 도서관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통해 아띠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초기 도서관만들기 모임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개관식도 이제 저희가 직접 다 기획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개관할 때 인사 같은 것 다 만들고 공연도 전부 다 아이들 공연으로 제가 다 섭외를 했었고 제가 공연 또 팀이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만나는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에 결합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자원

봉사 인력으로 남아서 계속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민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만들면서 왔던 ...”

“근데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원봉사제로 돌아가고 누가 땀땀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 사람들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고 이 상황들이 주요한 축이 되고 그분들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붙게 되고”

셋째, 지역주민들에게 아띠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고, 공부하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의미를 넘어서는 곳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언제 방문하든 편안히 맞이해주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아띠도서관은 도서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즉 아띠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에게는 아띠도서관이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임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띠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중심 즉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단순한 도서관이상의 의미로 지역주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우리 모두의, 우리 마을 모두의 도서관이다”

“이게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사랑방, 수다방”

“더 깊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게 아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마을 도서관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관계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심을 놓치지 않고 왔던 거.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삶에 대한 관심이고”

“자그만 도서관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아띠는 편안한 곳이거든요. 그냥 도서관이니까. 그 사랑방 같은.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그냥 옆드려 책 볼 수도 있고. 우리집, 우리방, 우리집이니까”

“친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확장되죠.”

“정말 동구에서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크게 이루어지는 데는 아띠가 정말 대단히 으뜸이다. 아띠가 없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마을 도서관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관계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심을 놓치지 않고 왔던 거.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삶에 대한 관심이고”

넷째, 아띠도서관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서관과 함께 성장을 경험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지역 내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안심지역에 여러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도서관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그 범위는 확장되었다. 현재 안심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수의 협동조합들이 형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구 전체의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은 2017년 기준 702여 개에 이른다. 그 중 마을단위로는 안심지역이 가장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전국적으로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협동조합의 근간에는 아띠도서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지금 여기가 유기농 농산물 파는 소비자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장애인, 장애인이 여기 와서 취업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모태가, 처음 출발점이 아띠 도서관이예요.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첫 출발점이고.”

“동행은 따로따로. 동행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 2011년도 두 가지 변화 이후에 경제적 공부를 몇 개월간 계속. 2012년 초에 만들어진 게 안심생활협동네트워크였고요. 협동네트워크가 2013년도 3월 30일자로 안심협동조합이라는 형식으로 전환을”

“그 아띠 도서관으로 인해서. 만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생협도 만들어볼까. 똑똑똑똑 만들고. 아 우리 공동 육아 만들어? 똑똑똑. 이리다 보니까 이게 15개 단체가 생겼고요. 근데 그 초심이 아띠라는거죠.”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 해결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면 아이 문제 이외에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동네에서 더 필요한 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판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여러 명이 모이면 그런 자신감이 있고”

“하여튼 사람 관계들을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단체는 뭐, 도서관하고 여기하고는(땅과 사람이야기 카페) 성격이 다른데. 연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V. 결론

지역공동체는 근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지역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아띠도서관의 시초인 ‘어린이도서관 준비모임’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상시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띠도서관을 개소한 후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이용자로서, 운영자로서 만나면서 도서관은 교류의 상시적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아띠도서관은 지역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다. 여성들은 도서관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동질감을 키우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띠도서관은 마을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친밀감과 신뢰는 잠재되어 있던 역량을 되살리고, ‘나’를 넘어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임파워먼트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에서 이름 없는 존재였다가 아띠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주체적인 삶과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또한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마을 주민들에게 아띠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를 넘어서는 곳이 되었다. 다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을이 단순한 거주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라는 단어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은 주민들의 교육과 여가 공간의 필요성이라는 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면서 상호 소통하고, 다른 여타의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띠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삶을 교류하는 공간이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단순한 정보서비스 혹은 교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적 이상의 존재가치를 지닌다. 아띠도서관의 사례처럼 지역 내의 작은도서관들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고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들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수행할 때 지역사회 즉 지역공동체는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띠도서관의 사례는 모든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사례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아띠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특성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의 연구는 아띠도서관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지역의 작은도서관들과 설립주체가 다른 작은도서관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용배. 2003. 지역사회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 요인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7(2): 189-21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libsta.go.kr/>> [인용 2018.2.24.].
- 김문정. 2015. “여성주의적 실천과 아고니즘의 정치학 : 대구 안심마을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 2015.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9(4): 31-52.
- 김영경. 2016.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동의 학습공동체 연구. 『한국교육』, 43(4): 105-134.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유승. 2014.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81-410.
- 김윤영, 정은주. 2016.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559-578.
- 김학실. 2014. 지역공동체 위기에 대응한 공동체주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권(5): 179-201.
- 김형용. 2012. 지역사회서비스와 마을공동체. 『복지동향』, 170: 43-46.
『도서관법』 2009. 법률 제9528호.
- 문순영. 2013.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 대구의 두 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6(1): 23-53.
- 박규남. 2016.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James S. Coleman의 기능적 공동체 : 대구시 작은도서관 사례.”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론행정전공.
- 박정숙. 2013.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디지털 도서관』, 70: 31-46.
- 성희자, 이강형. 2013. 농촌지역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 성희자, 진보경. 2006.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149-170.
- 신경림, 김미영.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서울 : 현문사.
- 양영균. 2012. 도시지역 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2): 35-67.
- 이명호. 2016. 공동체 위기와 복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9(1): 87-115.
- 이정호. 2014. 작은도서관 협력 네트워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2):

602-632.

- 양병훈. 2012.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89-309.
- 유양근, 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75-192.
- 양영균. 2012.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2): 35-67.
- 최재연. 2015.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가능성과 한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도시계획전공.
- 홍성태. 2006. 지역발전과 공동체의 가능성 : 생태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 Helliwell, John F., and Robert 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Biological Sciences*.” *Integrating Neurobiology,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 1446(sep 29): 1435-1446.
- Strauss, Anselm and Corbin Juliet.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Inc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Moon Jung, 2015. “Feminist practices and Politics of Agonism”, in Daegu. M. A. thesis. Keimyung University.
- Kim, Bo-il, Cho, Mi Ah and Byeon, Hyeon Ju. 2015. “A Study on Promotion of Small Libraries through an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ir 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31-52.
- Kim, Young Kyoung. 2016. “A Study on a Learning Community based within the Small Library Movement in Bucheon City.”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3(4): 105-134.
- Kim, You-Seung. 2014. “A Study on Legal Issues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381-410.
- Kim, Yoon Young and Jung, Eun Ju. 2016. “The Role and Function of Small Community Library for Foreign Immigrants : the Case Study of Multicultural Library at Wongok-dong, Danwon-gu, Ansan-si.”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559-578.

- Kim, Youngcheon.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oul: Academy Press.
- Law Library*. [enforcement 2009.9.26.] [law 제9528호, 2009.3.25.].
- Kim, Hak Sil. 2015. “The study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strategy on the confrontation of Local Community’s crisis.” *Journal of Crisisonomy*, 10(5): 179-201.
- Kim, Hyoung-Young. 2012. “Community Social Service and village community.” *Monthly Welfare Trends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Lee, Myoung-Ho.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risis and Restoration of the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East and Asian Social Thoughts*. 19(1): 87-115.
- Park, Gyu-Nam. 2016.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Functional Community Hypothesis by James S. Coleman : The Case of Mini Libraries in Daegu*. M. A.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Jung Sook. 2013. Introduction to Small Library. *Digital Library*. 70: 31-46.
- Shin, Kyounglim and Kim, Miyoung. 2003. *Grounded Theory Method*. Seoul:Hyunmunsa.
- Sung, Heeja and Lee, Gang-Heong, 2013. “The Impact of Rural Residents’ Social Participation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Exclusive Attitude toward Outgroup.”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4(4): 315-332.
- Sung, Heeja and Jeon, Bo Kyung, 2006.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Rural Areas.”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 27: 149-170.
- Yang, Byeung-Hoon.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e Programs in Small Libraries :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289-309.
- You, Yang-Keun and Park, Song-Yi.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Small Libraries : Focus o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1): 175-192.
- Yang, Young Kyun. 2012. A Study on the Urban Community Formation and Small Libraries : The Case of Youngin-si. *Korean Studies Quarterly*, 35(2): 35-67.
- Choi, Jae Yeon. 2015. *The Potential and the Limitation of the Community Library as a Community Center*. M. A.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homepage. <<https://www.libsta.go.kr/>> [cited 2018.2.24].